

2월

넷째 주

가정예배

## 나라를 위한 기도

**찬양해요** 찬송가 342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요엘 2:12-17

- 12 이호와 나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예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 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 14 주께서 흑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 15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 16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앙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 17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였나이까 할지어다

### 말씀 이해하기

성경에는 가끔 금식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대 종교적으로 7월의 대속죄일이 금식일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과 지도자와 백성과 제사장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오직 이날에만 회성 짐승의 속죄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서는 공식적으로 금식일이 1년에

단 한 번뿐이지만 바빌론 포로 이후에는 1년에 4차례 금식일을 지장하여 지나간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슬픔 가운데 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외에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일 또는 금식기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모인 가족들과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좀 더 생각해보기

- 1 선지자 요엘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북방의 거대한 군대가 마치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1-11절). 하나님께서는 이런 국가적 재난과 위험이 다가올 것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 하시나요 (12절)?
- 2 13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 3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인 위기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단사상이 문화를 통해 접근하다니 이제는 정치와 사회의 제도를 통해 혼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은 한반도를 더욱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16절)?
- 4 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17절).

## 기도해요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지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단 등을 움직이는 사탄의 세력을 무력하게 하옵소서. 북한 핵으로부터 보호하셔서 안전한 나라, 믿음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